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 건의문안

(권영천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4년 5월 29일

발 의 자 : 권영천의원외 14인

1. 제안이유

- 이천시는 한강수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권역·공장오염 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데도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또 하나의 중첩된 규제정책임.
-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금후 이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천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임.

2. 주요내용

-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이천의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맞설 것을 천명하고, 이천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건의하는 바임.
- 이천시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천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함.

※ 건의문안 : “별첨”

토지투기지역 지정 반대 건의문

이천시는 우리나라의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룬 문화교육 및 관광휴양의 도시이며, 충절의 고장이다. 또한, 이천은 중부내륙 교통의 요충지로서 첨단 산업의 발달과 중소기업의 밀집으로 발전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신흥도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한강수계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환경보전권역·공장오염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아 오고 있는데도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또 하나의 중첩된 규제정책이다.

이는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지방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동산 정책이라는데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 맞설 것을 천명하고, 이천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건의하는 바이다.

존경하는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님!

동북아의 경제 중심국가 건설 및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제의 자율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 20만 이천시민과 이천시의회 의원은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과 국가의 균형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2004년 5월 25 일자로 이천시가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보고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현실을 무시한 일괄성 없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어 토지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천시에 대한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여 오히려 지방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며,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한 사실이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국가발전에도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천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회 의원일동은 금후 이천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부동산 정책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천시의 토지투기지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4년 5월 31일

이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